

사도 바울

-열여덟 번째 이야기-



120Page

나 레 이 셴 사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 말했어요.

사 울 사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라는 편지를 써 주십시오.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떠났어요.



121Page

나 레 이 셴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시게 환한 빛이 비추었어요. 사울은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강한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 때,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 왔어요.

예 수 님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

사 울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수 님 나는 네가 미워하는 예수다!

나 레 이 셴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약속하신 왕이라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척 놀랐어요.

예 수 님 사울아,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 레 이 셴 눈이 멀게 된 사울을 함께 있던 사람들이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122Page

나 레 이 셴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간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예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123Page

나 레 이 셴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예 수 님 아나니아야! 유다의 집으로 가거라. 그 곳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도하고 있으니 안수해서 낮게 해 주어라!



124Page

아 나 니 아 주님, 제가 사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이곳 다메섹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얻어 왔습니다.

예수님 가거라! 그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니라!



125Page

나 레 이 셴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아 나 니 아 네가 이곳으로 오던 길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이 다시 보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나 레 이 셴 아나니아의 기도가 끝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일어나 아나니아에게 세례도 받았어요. 이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126Page

나 레 이 셴 사울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찾은 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했어요.

사 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남 자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울이잖아.

여 자 오잉? 어떻게 된 일이지?

나 레 이 셴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더 힘을 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어요.



127Page

나 레 이 셴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사람들은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도망치게 했어요.

이 사울이 바로 그 유명한 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면서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